

몇 년차냐고 묻는 당신에게

전공의 5년차의 삶을 사는 1년차 전문의, 전임의에 대하여

김 대 하

대한의사협회 홍보이사 겸 의무이사
내과전문의
zaizenkim@naver.com



들어가며

2015년 12월 전공의법이 국회를 통과한 지 며칠 되지 않은 어느 날. 의국에서 동료들과 전공의법에 따른 근무시간에 관하여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모 분과 펠로우(전임의) 선생님이 의국으로 들어오셨다. 손에는 컵라면과 삼각김밥이 들려 있었다. 우리의 인사에 조용히 눈인사로 응답하신 후에 조용히 구석에 앉아 라면과 김밥을 ‘마시듯이’ 드신 그 선생님은 잠시

후 문을 열고 나가시면서 피식 웃으면서 우리에게 한마디 하셨다. “그래서 전임의 특별법은 안 만든데?”

분명하지 않은 정의, 불안한 지위

전임의라는 명칭이 어디에서 유래된 것인지는 명확하지 않다. ‘전문의를 따고 교수가 되기 위해 대학 병원에서 일하는 의사’, ‘전공의(레지던트)와 교수의

중간', '세부전공을 공부하는 전문의'처럼 설명도 제각각이다. 누가 전임의인지, 전임의가 무엇을 하는 사람인지, 분명하지 않은 정의만큼이나 지위는 불안하고 권리와 의무, 역할 역시 불분명하다. 다만, 확실한 것은 정규직 교원은 아니지만 전공의보다는 경력이 많고 믿을만하며 대개는 교수가 되겠다든지, 무엇을 배우겠다든지 하는 분명한 목표를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으므로 과중한 업무나 좋지 않은 처우에도 버텨내는 '맷집'만은 상당하다는 것, 그리고 누구도 평생 전임의만 하는 사람은 없다는 것이다.

완생(完生)을 위한 몸부림

전문의가 되기 위한 과정은 길고 험난하다. '미천한' 의대생으로 시작해서 '바보' 인턴을 거쳐 '고된' 전공의 수련을 마치고 전문의시험에 합격하기까지 대략 10년 이상 걸린다. 긴 터널을 지나 드디어 꿈에 그리던 전문의가 되었음에도 다시 또 '어둠의 자식'인 전임의를 선택하게 되는 이유는 무엇일까. 교수가 되기 위함이라는 너무 당연한 이유를 제외한다면 대부분은 당장 봉직이나 개원을 하기에는 아직 충분한 실력과 경쟁력을 갖추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바둑 용어를 사용하자면 아직 미생(未生)인 셈이다. 전공의 과정에서 내시경이나 수술과 같은 핵심적인 술기를 접할 기회가 많지 않았으니 당연한 결과다. 가르쳐 주는 상급자가 인내심을 갖고 전임의를 배려하고 기회를 주어야 실력을 키울 수 있으므로 자연스럽게 갑과 을의 관계가 공고해진다.

“메일을 확인 바랍니다.”

교수님과의 관계가 나의 성취에 많은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자연스레 전임의는 충성스러워진다. 더 이상 전공의가 아니라 당당한 전문의가 되었으므로 수술이나 검사와 같은 진료업무에서 한 축을 맡게 된다. 공휴일 회진이나 전공의 교육, 회의참석 등 교수님을 대신하는 일도 많아진다. 어느새 교수님의 학술연구 및 대외 활동에도 최대 조력자로 부상한다. “전우치 선생님, 메일 확인 바랍니다. 옥황상제 드림.”류의 문자가 수시로 도착한다. 받은 편지함에는 정리가 필요한 연구 데이터나 교수님 앞으로 의뢰된 논문 심사, 외부 기고 요청, 방송 출연을 위한 질문목록 등이 쌓여간다. 의국의 각종 행사 준비 역시 전임의의 주요 업무 중 하나다. 연수강좌나 동문회를 준비하고 연락을 돌리고 참석인원을 조사하고 식당을 예약하는 일까지 몇 번을 반복하다 보면 자연스레 ‘행사 전문가’가 되어간다.

그래도 이 또한 지나가리라

병원마다 차이가 있지만 전임의를 공식적으로 ‘교수’로 표시해주는 곳들이 많이 있다. 어제까지 ‘형’이나 ‘선생님’이라고 부르던 후배 전공의들이 ‘교수님’이라고 부르면 손사래를 치면서도 잠깐 뿌듯한 기분이 들지만 사실 전임의는 1년짜리 계약직이다. 전문의라고 하지만 연봉은 전공의와 별 차이가 없거나 심지어는 더 낮은 경우도 많다. 최근에는 줄어들었다고 하지만 한때 무급(無給) 전임의가 수백 명에 이른 적도 있었다. 제대로 된 숙소나 자리를 배정받지 못해 전공의 숙소를 전전하거나 의국 한구

석을 차지하는 경우도 있다. 전공의는 지원자가 없는 필수의료 비인기과목들이 늘다 보니 함부로 하면 안 되는 '귀한 몸'이라는 인식이 생겼고 열악한 근로 환경이 사회적으로 부각되면서 자연스럽게 '약자'로 인식되었다. 그 결과, 권리를 당당하게 주장할 수 있는 분위기가 생겼고 전공의법까지 탄생했다. 하지만 전임의는 일단 전문의다 보니 누구도 약자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거기다가 전임의들 스스로 잠깐 머무는 자리로 생각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니 누구도 앞으로 나서 개선을 요구하기보다는 그냥 '이 또한 지나가리라'를 중얼거리며 버티게 된다.

전공의법 풍선효과 직격탄, '전공의 5년차'

풍선의 한쪽을 누르면 한쪽이 부풀어 오르듯 전공의법 실시 후 전공의의 업무량이 줄어들면서 상대적으로 전문의의 업무는 늘어났다. 특히 직격탄을 맞은 것이 전임의들이다. 전공의를 수료했으므로 일정 수준 이상 신뢰할 수 있는데다가 근무시간 제한도 없으며 불만이 있어도 딱히 티를 내지도 않으니 사실상 전공의의 '업그레이드'된 대체인력인 셈이다. 전공의는 퇴근하는데 전임의는 남아서 당직을 서거나 전공의 없이 전임의 혼자 회진을 도는 일까지 생겼다. 전공의가 휴가를 가면 전임의가 전공의 몫까지 하기도 한다. 전문의 1년차라기 보다는 차라리 전공의 5년차에 가깝다.

'전임의 특별법'이 필요하지 않은 내일을 향해

낮은 의료수가와 무너진 의료전달체계, 대형병원들의 신축과 병상증설 경쟁이라는 비정상적인 의료 현실 속에서 대한민국 의사의 대부분은 자신의 젊은 한 때를 '수련'이라는 이름으로 헌납하고 있다. 그 수혜는 일차적으로는 그가 속한 외국이나 병원에 돌아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궁극적으로는, 도저히 유지되기 어려워 보이는 이 나라의 의료를 '어떻게든' 유지하게 함으로써 결국 국민 전체에게 돌아가고 있다. 의사의 젊음은 이 나라 의료의 연료인 셈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전공의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덜 부각되어 있는 전임의의 삶의 질과 근로환경이야말로 우리 의료제도가 얼마나 지속 가능하며 합리적인지를 판단할 수 있는 지표라고 할 수 있다. 이는 단순히 관련 법령을 통한 법적 지위의 확보나 단기적인 개선만으로는 이뤄내기 어려우며 내실 있는 전공의 수련은 물론, 생명 유지에 필수적인 비인기 필수의료분야에 대한 수가 현실화, 실효성 있는 의료전달체계 개선책과 같은 근본적인 처방이 함께 병행되지 않으면 이뤄내기 힘들다는 점에서도 더욱 그렇다. "젊은 의사들이 굳이 전임의 특별법을 필요로 하지 않도록 하는 것!", 개혁과 투쟁을 외치는 의료계가 삼아야 할 목표는 어쩌면 이 한마디로 요약될 수 있는 것일지도 모른다.